

홍 윤 표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도구입니다. 곧 의미를 주고받음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주로 어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본 단위는 어휘입니다. 언어가 변화한다는 인식은 어휘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어휘야말로 언중들의 머릿속에 살아 있는 우리말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가 살아온 역사는 곧 우리말의 역사에 해당합니다.”

국어 어휘 자료 수집과 정보 처리에 남다른 성취를 보여 온 홍윤표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말이다. 국어학회장, 국어사학회장, 한국사전학회장, 한국어전산학회장, 거래말근사전 남측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홍 교수는 전공인 국어사 분야는 물론 국어 정보화의 기초를 닦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홍윤표 교수를 만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학자로서의 인생과 나이를 잊은 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말 어휘 연구의 성과에 대해 들어본다.

답변자: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10년 2월 24일

곳: 서울 연남동

장승욱: 선생님께서 정년퇴직하신 지 이제 3년째가 되어 갑니다.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홍윤표: 학교에 있을 때 못다 했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승옥: 못 했던 일이라면, 어떤 것들인가요?



홍윤표: 제가 해 온 일들,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인데, 현재 3500개 정도 되는 단어의 역사가 정리돼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최종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한자들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를 밝

히는 작업입니다. ‘천자문’이나 ‘훈몽자회’처럼 그런 변화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문헌 자료들이 300종이 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한자의 음이나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天)’자 같으면, 옛날 ‘하늘 턴’에서 오늘날 ‘하늘 천’으로 바뀌었고, 성씨에 쓰이는 ‘박(朴)’자도 옛날에는 ‘숫돌’ 또는 ‘숫되다’, ‘순박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박정희 박’이라고 할 정도까지 왔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300여 종의 자료를 입력해서 ‘한자 자서 역사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250종가량 입력을 마쳤습니다. 입력 작업을 마저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상태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는 글자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국어 정보화 작업을 많이 해 왔는데, 아직까지 ‘국어 정보화 개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서상규·한영균 선생이 쓴 ‘국어 정보화 입문’ 말고는 교과서로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만 들어서 지금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어사전을 만들고 싶어서 기존 사전들의 내용을 전부 정리해 어휘별로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서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말뭉치’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능률은 떨어지고…… ‘일모도원’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장승옥: 혼자서 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홍윤표: 일을 하려면 사람과 조직,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하는데, 퇴임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저 혼자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장승옥: 다른 건 몰라도, 고어사전 같은 것은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벅찬 일 아닌가요?

홍윤표: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들만이라도 정리해서 남겨 둬야겠죠. 지금까지 고어사전이 몇 가지 나오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어느 한 시대에 편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뭉치가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역사적 말뭉치를 총체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어사전이라면, 어떤 단어가 어느 시기에 생겨서 어느 시기에 없어졌고, 반의어는 무엇이고 유의어는 무엇이며, 이형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못 해서 그냥 자료로 남겨 두면 누가 또 하겠죠. 완성은 못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옥: 2004년에 세종문화상을 받으신 뒤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 “국어 어휘의 역사를 규명하고 국어의 현대 어휘를 총정리해서, 사전과 CD로 편찬해 누구나 우리말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어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홍윤표: 국어 어휘 약 50만 개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니 두고두고 해야 할 일이지요.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는 편집이 끝나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량은 큰 책으로 2단 편집을 했을 때, 3000에서 4000페이지쯤 됩니다. 세기별로 표시가 돼 있고, 이어서 형태별로도 돼 있어서 어떤 단어의 어느 형태가 어느 시기에 쓰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것이 멀리서 15세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예문은 어떤 문헌의 몇 페이지에 나오며, 그 단어의 형태나 의미가 어느 시기에 나타나서 어느 시기에 바뀌고 어느 시기에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승옥: 듣기만 해도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홍윤표: 교정을 봐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돈이 안 되는 출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에게 때를 써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승옥: 그래도 쓰임새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소설을 쓰는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요?

홍윤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말, 그리고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책을 만들어 놓으면 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장승옥: 지난해에 내신 ‘살아 있는 우리말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우리말의 어원을 새록새록 알아 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떻게 해서 쓰신 책입니까?

홍윤표: 원래 제가 국어사 전공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신대 채수일 총장이 제게 ‘여편네’라는 말이 ‘옆에 있다’고 해서 ‘여편네’가 된 거냐고 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냐고 물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 ‘여편’이 있고, 여기에 ‘네’가 붙어서 ‘여편네’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

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써 달라고 해서 사실 제 전공도 아닌 데, 그분이 맡고 있던 ‘살림’이라는 잡지에 우리 어휘의 어원이나 역사에 대한 글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떤 국어학자가 보고 소개를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던 ‘새국어소식’에 2002년 3월부터 한 달에 한 편씩 글을 쓰게 됐고, ‘새국어소식’이 없어진 뒤에는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에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대로 재미나다고 해서 7년이 넘게 쓰던 것이 지난 12월에 끝났습니다.

주위의 여러분이 이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기는 했는데, 우리말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비전문적인 내용이고, 일반인에게는 반쯤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별로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고나 할까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가를 이용해 낸 책 중의 하나입니다.

장승옥: 여가를 이용해 쓰신 책치고는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홍윤표: 그래요? 그럼 고맙고요.

장승옥: 이런 내용으로 계속 쓰시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윤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어사전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써서 사전을 많이 갖고 있을 뿐 아니라 15세기 이후의 모든 말뭉치를 입력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검색하면 어떤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문맥이 다 나와서 한 단어 가지고 시작을 하면 하루에 한 꼭지씩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승욱: 이달(2월)에 ‘쉽표, 마침표’에 ‘홍윤표의 한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글을 쓰실 계획인가요?

홍윤표: 처음에는 한글에 대해 써 달라고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저는 국어학자들이 한글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어학자들은 한글을 ‘의사 전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한글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서예가에게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이고, 컴퓨터 전공자에게는 이진수의 하나입니다. 디자이너는 글자의 조형성을 가지고 미를 창조하려 하고, 무용하는 사람들은 한글의 선을 몸으로 표현해서 아름다움에 도달하려 합니다. 우리 국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만 생각했는데,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이상으로 참 많습니다. 서체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시를 고딕체나 돋움체로 쓴다면 그 시의 맛이 죽어 버립니다. 연애편지를 쓴다면 궁체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글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한글 서체 문제에 대해 써 봤습니다.

한글 가로쓰기를 어떤 책이 제일 먼저 했을까, 최초로 여러 가지 서체를 섞어서 쓴 서적은 무엇일까, 한글 전용으로 쓴 최초의 책은 무엇일까, 한글을 돌이나 금속에 새긴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관심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글 전용이 18세기부터 이뤄졌는데, 18세기에 왜 그렇게 한글 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개 종교 때문입니다. 불경이라든가 도교 관계 서적들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한글문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자들이 모음 체계, 자음 체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한글문화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국민이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래서 다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쓸 것도, 쓰고 싶은 것도 많지만 막상 쓰려면 자료 찾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서 말입니다.

장승옥: 선생님께서는 국어사를 전공하셨지만 한글 서체 개발이나 국어 정보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휘사와 어원 연구, 사전학 같은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그중에서도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홍윤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공은 국어사죠. 그런데 어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아까 언급했듯이 문화와 국어를 연관시키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국어 정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연관된 언어 단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이나 문장이 아니라 어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변화한다는 인식을 어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문화사를 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전학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도구가 컴퓨터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정보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컴퓨터가 해결해 주니까요.

학문이라는 것은 대개 세 가지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자료고, 나머지 하나는 실험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료 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곧잘 비유하기를, 자료와 이론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이론이 크고 자료가 작으면 만날 뱅글뱅글 돌게 될 것이고, 그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또 이것을 앞에서 끌고

가는 말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쪽은 내버려 뒀도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변형생성 이론처럼 외국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이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국어학 연구에서 본령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귀납되려면 구체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실험 도구인 컴퓨터로 정보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컴퓨터 쪽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승옥: 컴퓨터는 언제부터 배우셨습니까?

홍윤표: 1980년대 초반 286 때부터죠. 제가 그때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를 약 40만 장이나 만들어 연구실에 쌓아 놓았는데, 어떤 전자공학과 교수가 그걸 보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컴퓨터로 처리하면 될 텐데…….” 하면서 제안을 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프로그램이 팔란티어인가 그랬는데 그것은 옛한글을 쓸 수가 없었죠. 아래아한글도 없었을 땀니다. 그 뒤에 보석글이 나왔습니다. 옛한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제가 한글 폰트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영역을 가지고 폰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늘리느라고 삼보컴퓨터와 같이 작업도 하고 한국어전산학회도 만들고 하면서 컴퓨터를 배우게 됐고, 지금은 컴퓨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승옥: 지금은 완전히 전문가가 되셨겠네요?

홍윤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프로그램 만들어 주면

쓰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라고 하는 정도죠.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그 40만 장의 카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윤표: 다 버렸습니다. 입력을 다 했으니까. 둘 곳도 없었고요.

장승욱: 그걸 만드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셨을 텐데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홍윤표: 거의 십몇 년을 매달려서 만든 것이긴 했지만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장승욱: 요즘 젊은 작가들 책을 읽어 보면 어휘력이 너무 빈곤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윤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의 문제이고, 하나는 독서의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선진국들은 어휘 교육이 철저하거든요.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기초 어휘가 선정돼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몇 개 어휘, 2학년 때는 몇 개 어휘 식으로 해서 대학 때까지는 몇만 개 어휘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지형 어휘, 또 하나는 발표형 어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너무 인지형 어휘에 치중해 왔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만 매달려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정치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보다는 남의 생각을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표형 어휘를 교육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짧은 글 짓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초등학교에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견을 담은 문장을 만들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서 경향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독서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만화의 비중이 엄청나게 큼니다. 물론 만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거기 쓰이는 어휘라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휘를 습득하고, 그것을 실제 직접 체험에서 응용하는 이런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봅니다.

방금 지적한 것처럼 작가들의 어휘력이 빈곤한 것은 이런 배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썼던 어휘들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작가들이 아주 드뭅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몇몇 작가들은 본받을 만합니다. 김주영 씨도 그렇고 이문구 씨도 그렇습니다. 최명희 씨의 ‘혼불’을 보면 우리 말을 지키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감동적입니다. 한번은 최명희 씨의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노트가 거의 사전에 가까워서 놀랐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생기고, 나아가서 그것이 일반화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 교육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도 우리말 어휘 보급을 위해서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장승욱: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토론을 못해서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과 연관되는 것이겠지요?

홍윤표: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토론이나 토의 문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수였을 때 보면,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엠티를 간다고 합시다. 과대표가 나와서 “엠티를 갑니다. 가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없으니까 “갑시다.” 합니다.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의견이 나오니까 “어느 때 갔으면 좋겠습니까. 손들어 주세요.”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소도 “손드세요.”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돼서 막상 나타난 사람은 예수 명 가운데 다섯 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건 토론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먼저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학생들에게 왜 좋으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해요. “전 안 갔으면 합니다.” 하는 학생에게 “왜?” 그랬더니 역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언제가 좋습니다.” 해서 역시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 엠티를 갔더니 이번에는 마흔 몇 명이 왔습니다. 토론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좋고 나쁜 것을 이해하고, 또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으냐 싫으냐 찬반만 따지니까 “나는 싫어.” 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번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승욱: 제가 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어학회, 국어사학회, 한국어전산학회를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회장을 지내셨는데, 일복을 타고나신 건가요?

홍윤표: 남들이 강제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한다고 남들 앞에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

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들어 놓은 학회도 많습니다. 한국어전산학회도 김충희 선생님과 같이 만들었고, 국어사학회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언어학의 영향 때문에 현대국어만 연구하던 시절이었는데, 국어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업보로 그 자리가 돌아온 거죠. 다른 자리도 억지로 막 갖다 시켜서 그때그때 했는데 제대로 해낸 것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장승옥: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홍윤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키면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장승옥: 건강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홍윤표: 비결 같은 건 없지만, 있다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너무 안 아프면 건강에 무심하게 되고, 너무 아프면 힘든데 저는 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잘 오셨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셔야 건강합니다.”라고 농담을 합니다.

장승옥: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홍윤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모를 일이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승욱: 고맙습니다.